

농촌자원에 대한 다원화된 인식구조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Pluralistic Valuing Structure on Rural Resources

최수명* · 황한철** · 한경수***

*전남대학교 농공학과 · **안성산업대학교 농촌개발학과 · ***전남대학교 대학원

I. 서론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제자원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선행적 연구로 “주민참여 방법론”의 기틀모색과 함께 다층적이고 다원화된 자원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촌생활 및 자원에 대한 다양한 항목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다음 지역·연령·학력·직업별 인식구조를 비교·분석하였다.

표 - 1. 설문 현황

< 단위 : 매수, ()는 % >

구분	지역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도시	농촌	40세 미만	40세 이상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 이상	농어업	상업등 서비스	공무원	회사원	주부	학생	기타
설문수	249 (43.3)	326 (56.7)	313 (54.4)	262 (45.6)	185 (32.1)	216 (37.6)	174 (30.3)	109 (19.0)	132 (23.0)	117 (20.3)	41 (7.1)	83 (14.4)	47 (8.2)	46 (8.0)

II. 농촌생활환경 및 농촌자원에 대한 인식분석 결과

1. 농촌생활 및 환경에 대한 인식

가. 농촌생활 선호도 분석

전체적으로 평온하고 정이 있는곳(81.2%) → 자연적인 곳(75.8%) → 고향(72.2%) → 아름답고 깨끗한 농촌환경(68.0%) → 휴식공간 확보(49.0%) 등의 순으로 탈도시적이고 전원적인 자연환경에 대한 강한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다.

저개발상태에 있는 농촌지역은 도시부에 비해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고 정이 있고, 평온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리라는 기대심리가 다소나마 표출되었다. 농촌개발은 농촌현실과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결여와 막연한 기대로 초래되었던 농촌주민들의 현실적 소외감을 최소화하면서 노·소가 공존할 수 있는 생활범역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특히 개발의욕과 잠재력이 풍부한 젊은층의 귀촌(향)을 촉진할 수 있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의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나. 농촌생활 기피이유에 대한 분석

전체적으로 자녀교육문제(82.4%) → 낮은소득(69.9%) → 문화생활어려움(60.9%) → 교통불편(54.6%) → 직업선택의 어려움(53.2%)의 순으로 통상적인 농촌생활의 불편사항이 높은 순위이나 문화생활·직업선택의 어려움 등 선진국형 불편사항이 토로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결과로 판단된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원격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의 농어업 종사자들 일수록 힘든 농사일과 낮은 소득으로 부모입장에서 영농을 위한 가업상속을 기피하려는 경향에 더하여 상대적으로 대중매체와의 접촉이 빈번한 고학력 및 젊은층들의 향도이촌현상이 유발되었고,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그들의 이해와 맞물려 상대적으로 직업선택의 폭이 넓은 도시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 농촌느낌에 대한 분석

전체적으로 고된 농사일(67.5%) → 고향(50.8%) → 정이 있는곳(50.4%) → 노인들만 사는곳(49.7%) → 정착하고 싶은곳(44.7%) 순으로 고된 농사와 소외되고 침체된 지역이라는 어두운 이미지와 여유있고 향수어린 살만한 곳이라는 목가적 동경이 교차되고 있는 통상의 농촌관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농촌에 대한 느낌은 직접적인 접촉의 유무에 따라 고된 농사일과 노인들만 사는 곳이라는 어두운 측면과 정이 있는 곳, 정착하고 싶은 곳 등 목가적 동경이 상존하고 있고, 고학력층의 U-turn 경향이 표출되고 있어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가 절실하며 농촌거주자와 방문자인 도시민 사이의 의견차를 조정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라. 농촌의 정비·개발대상

전체적으로 마을안길·마을간도로(66.1%) → 상하수도시설(64.0%) → 주택개량(54.1%) → 화장실(목욕탕)(48.7%) → 농경지정비(37.9%) 등의 순으로 소득원개발보다 생활환경의 개선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농촌의 정비는 생활환경정비와 자연환경보전을 적절히 조화시키면서도 편리하고 현대적인 거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계획에 의해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실제로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지역·연령·직업에 따른 개발의사의 상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농촌자원에 대한 인식

전체적으로 전통민속놀이(67.5%) → 전래유적지(53.6%) → 천연기념물(49.2%) → 당산나무·정자(47.0%) → 산림(46.8%) 등의 순으로 민속·유적·상징물에 대한 선호도가 자연환경의 선호도를 압도하고 있다.

전통환경 및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 보면 농업종사자로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을수록 직접적인 접촉범위를 선호하고 있었으며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고학력으로 상대적으로 젊은층일수록 지역특이자원에 대한 선호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어 농촌자원의 관리자와 수혜이용자사이의 갈등이 예상된다.

Ⅲ. 요약 및 결론

1. 농어업의 종사자일수록,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을수록 지역공동체 의식을, 연령이 낮고 고학력자일수록 평온하고 정이 있는 아름답고 깨끗한 농촌환경에 대한 목가적인 동경을 농촌생활 선호이유로 들고 있다.
2. 농촌생활 기피이유에 있어선 기본적으로 자녀교육문제의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들고 있으며, 농어업에 종사자, 고령자, 저학력자는 낮은 소득과 힘든 농사일 등 경제적 어려움을 거론하고 있으며, 고학력자, 월급생활자의 경우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직업선택의 어려움, 낙후된 생활환경, 문화생활의 어려움, 교통불편 등 생활·환경측면에서의 불리함을 제시하고 있다.
3. 농촌환경에 직접적인 접촉의 유무에 따라 고된 농사일과 노인들만 사는 곳이라는 어두운 측면과정이 있는 곳, 정착하고 싶은 곳 등 목가적 동경이 교차하고 있었고, 고학력층의 U-turn 의향이 다소 나타나고 있다.
4. 농촌의 정비·개발대상은 지역적인 불리여건을 개선하여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자는 젊은층의 사고와 우선 주거환경개선을 통해서 생활환경을 개선하자는 노년층의 사고가 뚜렷히 구별되었다.
5. 전통환경 및 자연환경보존에 있어서 도시지역 주민, 고학력, 젊은층의 경우 지역특이자원에 대한 선호가 높아 관광·위락적 측면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으며, 농촌주민, 저학력, 노년층일수록 직접적인 접촉대상인 내향적 선호와 토속신앙 및 공동체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